소셜미디어, 시장, 교실, 그리고 서점: 권위주의 체제 하의 시민사회 공간 탐색

Sarah · 2026년 11월 26일

AI 요약

소셜미디어, 시장, 교실, 그리고 서점은 권위주의 통치하의 삶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줄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지난 11월 19일 2026년 목요일, 서울 숭실대학교 컨퍼런스룸을 가득 채웠다. 숭실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은 '비교 관점에서 본 시민 공간: 권위주의 체제 하 도시의 일상과 행위성'을 주제로 제5회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안내문 보기). 다양한 국가에서 온 연구자와 전문가들은 국가가 일상을 통제하려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 반경을 찾아내는지 비교했다. 이 대화는 연구원에서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연구원은 2021년부터 북한 도시들의 시장 주도적 변화와 주민들의 삶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이번 프로그램은 두 개의 기조연설로 구성된 개회 세션을 시작으로, 연구자와 토론자들이 각자의 연구와 생각을 공유하는 세 개의 주제별 세션, 그리고 폐회 원탁회의로 진행되었다. 특별 게스트와 사회자들도 그들의 경험, 질문, 논평을 통해 이날의 행사를 더욱 풍...

소셜미디어, 시장, 교실, 그리고 서점은 권위주의 통치하의 삶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줄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지난 11월 19일 2026년 목요일, 서울 숭실대학교 컨퍼런스룸을 가득 채웠다.



숭실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은 **'비교 관점에서 본 시민 공간: 권위주의 체제 하 도시의 일상과 행위성'**을 주제로 제5회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안내문 보기). 다양한 국가에서 온 연구자와 전문가들은 국가가 일상을 통제하려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 반경을 찾아내는지 비교했다.

이 대화는 연구원에서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연구원은 2021년부터 북한 도시들의 시장 주도적 변화와 주민들의 삶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이번 프로그램은 두 개의 기조연설로 구성된 개회 세션을 시작으로, 연구자와 토론자들이 각자의 연구와 생각을 공유하는 세 개의 주제별 세션, 그리고 폐회 원탁회의로 진행되었다. 특별 게스트와 사회자들도 그들의 경험, 질문, 논평을 통해 이날의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대화의 시작

학술회의는 이원철 숭실대학교 총장과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Georg Wilfried Schmidt) 주한 독일 대사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이어 두 명의 기조연설자가 무대를 열었다. 북한의 1990년대 기근 구슬 역사와 국가의 인권 침해를 연구하는 카를턴 대학교의 **샌드라 패파이(Sandra Fahy)** 교수와, 정치적 박해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독일 연방의회 동독정치적희생자명예회복옴부즈맨 사무실의 책임자인 **닐스 슈비더스키(Niels Schwiderski)**가 그들이다.

동독의 억압과 저항에 대해 이야기하며 닐스 슈비더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교회는 국가의 통제를 크게 벗어난 기관들이었다. 교회 내에서 시민들은 표현의 자유가 꽃피는 행동 공간을 찾았고, 그 결과 마침내 저항이 발전했다. (닐스 슈비더스키)

따라서 비록 광활한 토양 속의 작은 씨앗과 같을지라도, 권위주의 체제를 뚫고 나오는 무언가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특별한 장소들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세션 1: 북한의 신뢰, 안정, 그리고 시민 공간

연구원장인 김지영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번 세기 가장 권위주의적인 체제 중 하나인 북한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 세션에서는 또한 북한의 사례를 바탕으로 언론인의 취재원 네트워크가 폐쇄 사회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김성배** 명예교수의 토론문이 발표되었다. 네 개의 발표에는 각각 지정 토론자가 참여했다.



비공식 미디어와 청년 – 정성준

엄격한 검열 속에서도 북한 청년들은 지하 네트워크를 통해 외화 영화 및 기타 금지된 매체에 접근할 방법을 찾아낸다. 이 연구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어떻게 신뢰와 비밀에 의존하는지 탐구하며, 여기서 친구는 보호의 원천이자 잠재적 위험 요소가 모두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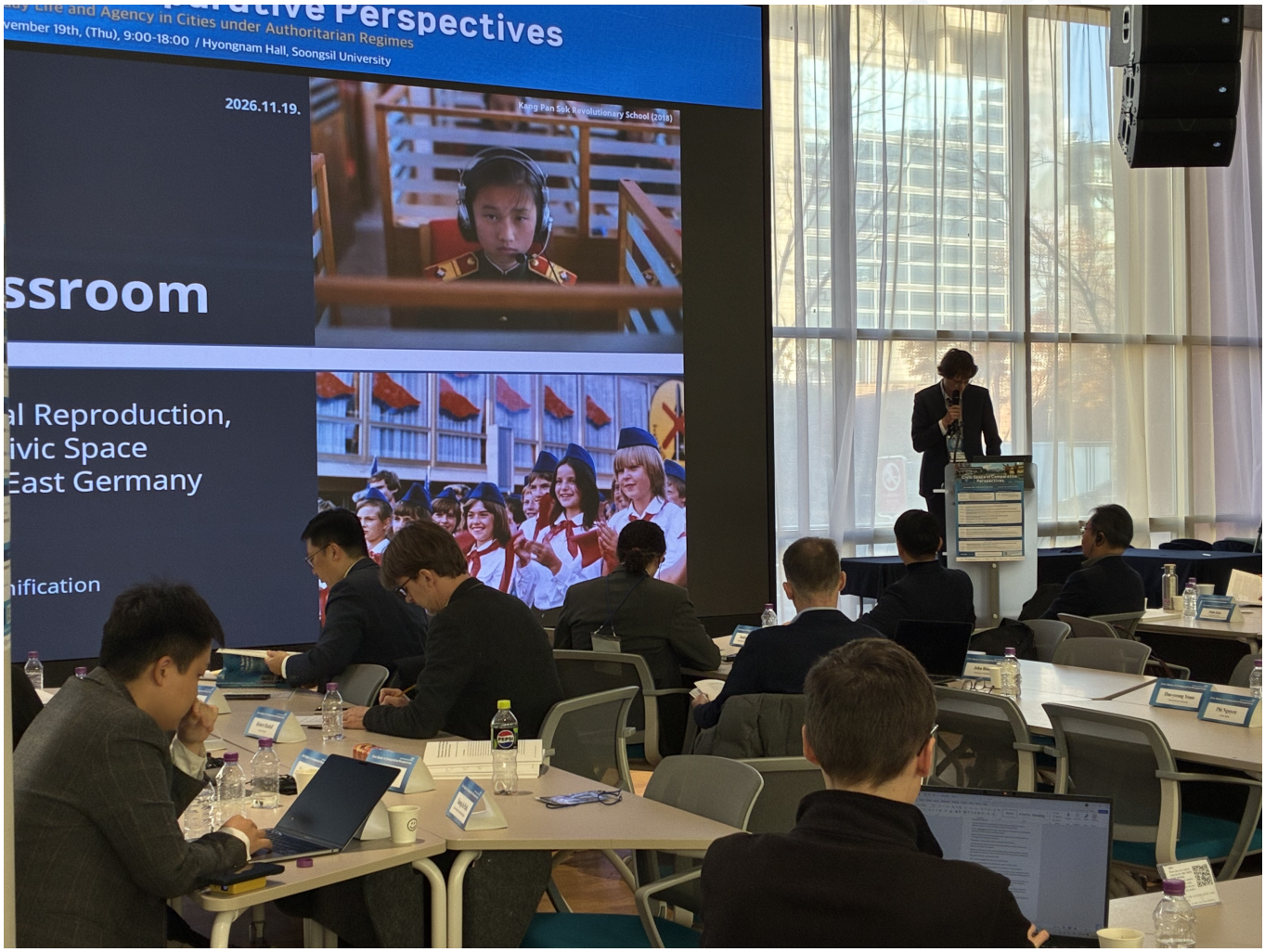
토론자: 피터 워드(Peter Ward).

엘리트와 순응 – 김성배, 백명숙, 성신김

정부가 지지자들로부터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연구는 북한의 경제 엘리트들이 공개적인 반란이 아니라 자신의 부를 조용히 숨기고 내부에서부터 체제를 교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안 병력이 여전히 강력한 상태에서도 체제가 마비될 수 있음을 탐구한다.

토론자: 한동호.

교실을 넘어선 학습 – 프랑크 뫼링(Frank Moeh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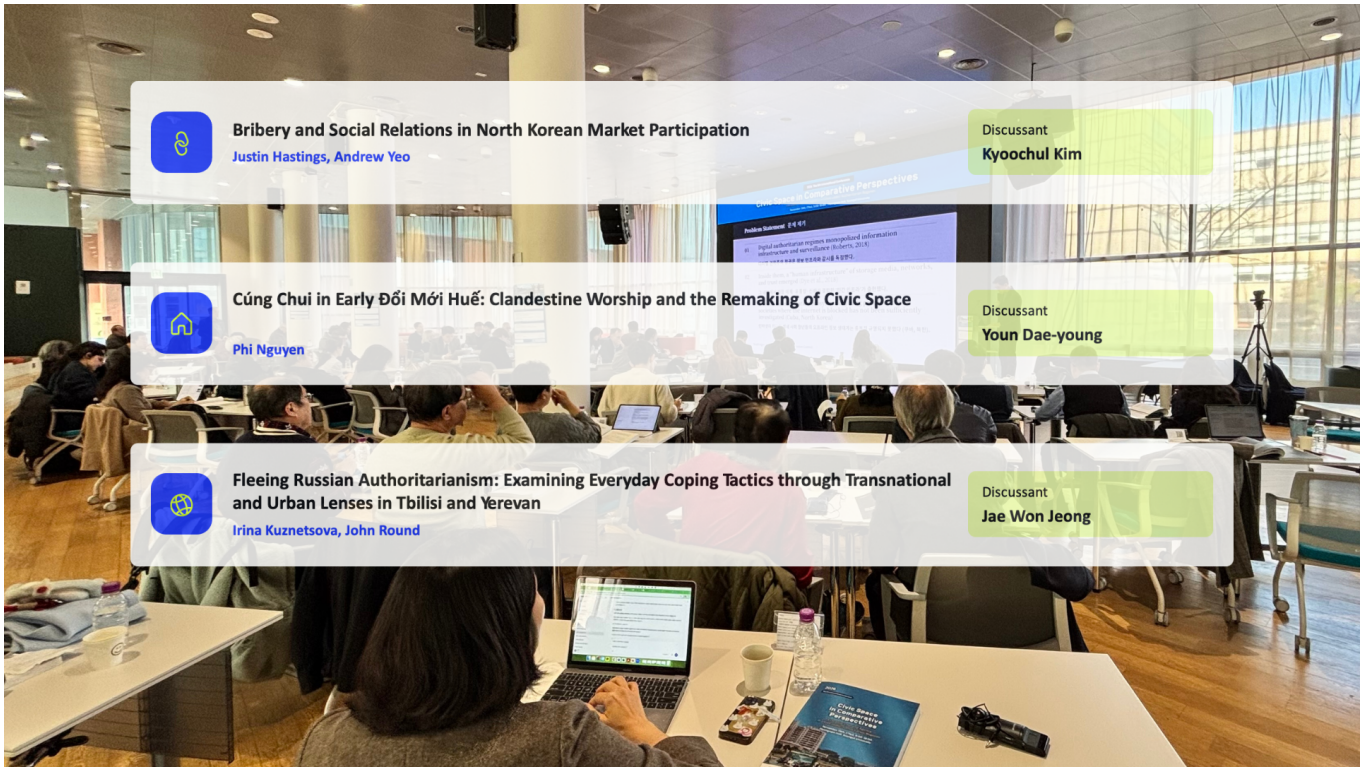
사교육 세션이 단순히 시험 공부를 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될 수 있는가? 북한과 구동독을 비교하며, 이 연구는 비공식 학습이 어떻게 우정, 독립적인 네트워크, 집단 행동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지 조사하는 동시에 이러한 연대가 동베를린에서는 시민 참여로 발전한 반면 북한에서는 더욱 제한적으로 남아 있는 이유를 보여준다.

토론자: 로베르트 루돌프(Robert Rudolf).

신뢰의 한계 – 문예찬, 서문기
북한 주민들은 사업을 운영하고 돈을 빌리며 살아남기 위해 점점 더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함께 일어설 수 있을 만큼 서로를 신뢰한다는 뜻인가? 이 연구는 신뢰에는 종종 한계가 있음을 발견한다. 즉, 믿을 만한 비즈니스 파트너일지라도 반드시 정치적 논의를 하거나 당국에 도전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자: 김택빈.

세션 2: 권위주의하의 일상적 행위성

샌드라 패파이 교수가 좌장을 맡은 두 번째 세션은 북한 시장에서 베트남과 남캅카스로 무대를 옮겼다. 초점은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에 맞춰졌다.



북한 시장 참여에서의 뇌물 수수와 사회적 관계 – 저스틴 V. 헤이스팅스(Justin V. Hastings), 앤드류 여(Andrew Yeo)
북한에서 뇌물을 주는 것은 항상 부패로 간주되지 않으며, 때로는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고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방식일 뿐이다. 시장 참여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이 연구는 뇌물이 실제로 어떻게 신뢰를 구축하고, 사업가와 관리 간의 관계를 강화하며, 공식 제도가 거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사회에서 일상적인 시장이 기능하도록 돕는지 밝혀낸다.
토론자: 김규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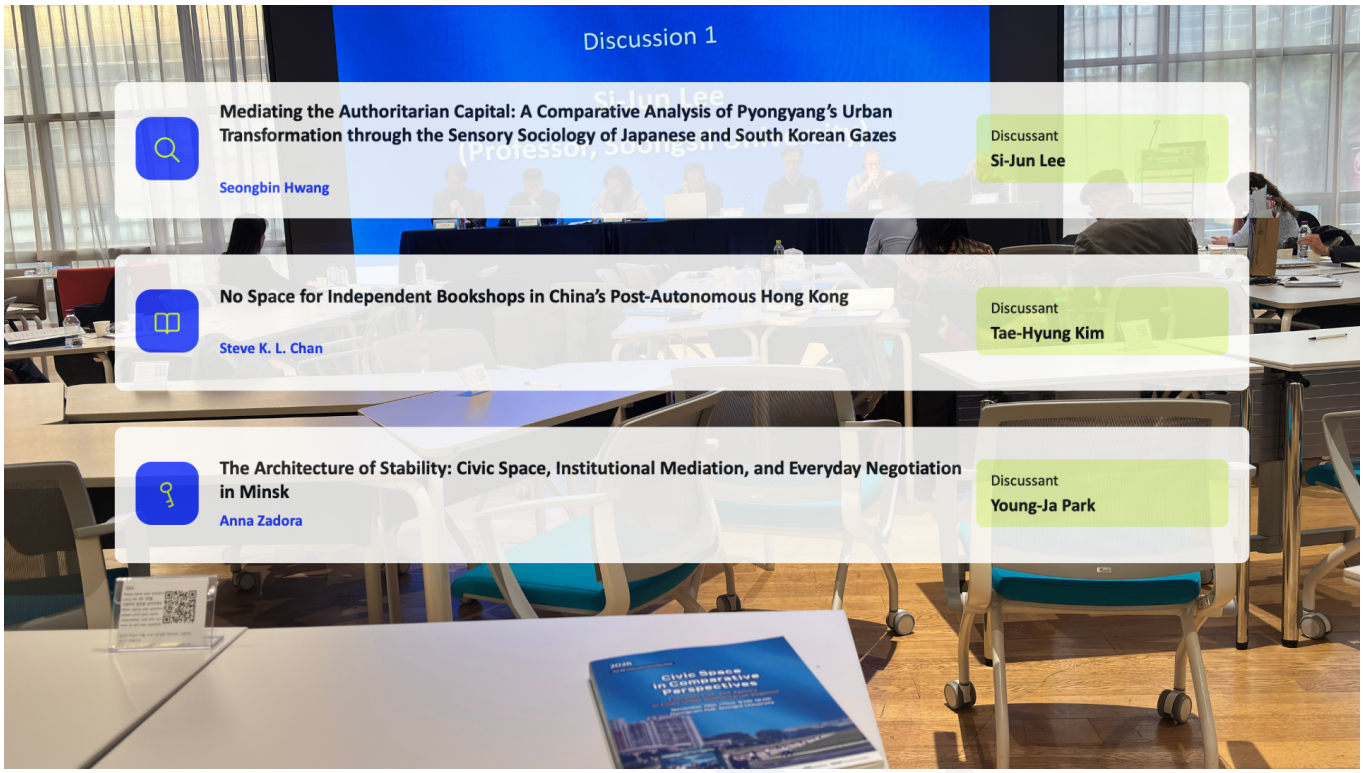
전후 후에(Huế)의 쿵 추이(Cúng Chui): 비밀 예배와 시민 공간의 재구성 – 피 응우옌(Phi Nguyen)
베트남 전쟁 이후, 정부가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형성하고자 함에 따라 지역 종교 관행과 전통 공예는 금지되었다. 의식을 비밀리에 보존하고, 성지를 재건하며, 당국으로부터 전통 공예를 숨긴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연구는 일상의 조용한 저항 행위가 공동체가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변화하는 정치 체제 속에서도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보여준다.
토론자: 윤대영.

러시아 권위주의를 피해 탈출하기 – 이리나 쿠즈네초바(Irina Kuznetsova), 존 라운드(John Round)
권위주의 국가를 떠나는 것이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트빌리시와 예레반으로 탈출한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그들이 새로운 도시에서 감시, 위협, 불확실성, 그리고 때로는 적대감에 직면하면서도 어떻게 삶을 재건하는지 탐구한다.
토론자: 정재원.



세션 3: 매개 공간으로서의 도시

‘도시 매개와 권위주의 공간’이라는 주제의 마지막 세션은 김필호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청중을 세 개의 매우 다른 도시로 이끌었다.



권위주의 수도 매개하기 – 황성빈

우리는 도시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 그 도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연구는 일본과 한국의 언론이 수십 년 동안 평양을 어떻게 묘사해 왔는지 조사하며,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문화적 관점에 따라 도시의 이미지가 위협적인 권위주의 수도에서 보다 낭만적이거나 인간화된 장소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보여준다.

토론자: 이시준.

중국의 자치권 상실 이후 홍콩에 독립 서점을 위한 공간은 없다 – 스티브 K. L. 찬(Steve K. L. Chan) 서점조차 정치적으로 민감한 장소가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연구는 독서, 토론, 아이디어 교환의 중요한 공간이었던 홍콩의 독립 서점들이, 특히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중국의 도시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어떻게 점점 더 제약을 받아왔는지 탐구한다.

토론자: 김태형.

민스크에서의 시민 공간, 제도적 매개, 그리고 일상적 협상 – 안나 자도라(Anna Zadora)

권위주의 정부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지 않고도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 벨라루스 민스크의 사례를 통해, 이 연구는 안정이 억압뿐만 아니라 일상의 타협에도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즉, 사람들은 공공 규칙을 따르면서도 사적 공간, 이웃, 학교, 사회 제도의 일부 자율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토론자: 박영자.



이날 행사는 시민 공간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라는 공통된 질문으로 토론을 되돌리는 **원탁회의**로 마무리되었다.

새롭게 열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

개인적으로 이는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다. 전문가들과 열정적인 연구원들에 둘러싸여 그들의 연구 결과와 관심사를 나누는 것은 깊은 통찰을 주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비교들을 들을 수 있었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기분이었다.

나를 가장 매료시킨 것은 권위주의 체제 하의 도시들이 가진 유사성들이었다. 그리고 시민 공간은 어떠한가? 그것은 시장, 학교, 서점, 소셜미디어 또는 소셜 그룹이 될 수 있다. 각 발표자는 이러한 공간들에 대해 새롭고 독창적인 시각을 가져다주었다.

토론 또한 그만큼 가치 있었다. 학술 및 연구 분야 출신인 토론자들은 적절한 관점을 제시했다. 그들은 발표자들의 연구에 기여했으며 청중이 각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왔다.

대학교와 조직 팀에게도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 학술회의의 구성은 훌륭하고 편안하며 매우 잘 조직되어 있었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연구 논문과 연설문이 수록된 책자가 제공되어 내용을 따라가며 보관할 수 있었다. 한국어와 영어 간의 동시통역 덕분에 어느 누구나 소외되거나 압도당하거나 길을 잃지 않았다. 청중은 걱정 없이 온전히 집중하며 각 연설을 즐길 수 있었다.



결론: 변화의 작은 씨앗들

너무나도 새롭고 흥미로운 정보들로 가득했던 하루가 지나고, 학술회의는 모든 이가 마지막 생각, 질문, 소감을 나눌 수 있는 역동적이고 활기찬 원탁회의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모든 지식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고 이러한 시민 공간의 창출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마지막 순간, 숭실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인 정 박사는 나아갈 길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시민 공간은 항상 움직이고 변화하기 때문에 성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모든 공간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열심이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연구와 공유된 학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구축된 학술회의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외침으로 끝을 맺었다. 그 지식을 이러한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 문서는 LinkAsia (linkasia.net) 에서 생성되었습니다.